문제해결보다 세상 교환이 더 쉽다

(열왕기상 19:15~21)

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8.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문제해결보다 세상 교환이 더 쉽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문제해결보다 세상 교환이 더 쉽다'
우리는 삶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하나하나에 매달려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이 고달픈 것이 사실이고 문제없는 인생의 구간이 없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 숨 돌리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정말 문제없이 평안한 날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을 인생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들에 매달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프랑스나 북유럽에서는 세금이 세다 보니 부자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해서 탈세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머리가 좋고 경제 분야의 식견을 갖춘 사람들을 고용해서 법망을 이용하여 탈세내지는 절세를 위해 애를 쓰는데 그러나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다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당연지사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처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수고와 에너지를 지불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힘은 세상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주어지는 문제는 해결할 마음도 뜻도 힘도 없는 것이 정상인데 마음과 뜻과 힘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위풍당당한 모습과 호렙산에서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하나지만 이 지구 위에 두 개의 세상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 세상은 세상을 대하여 우리가 위풍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있고, 또 하나의 세상은 호렙산에서처럼 두려움에 사로 잡혀서 살아야 하는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세상이 갈멜산에서와 같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고, 어떤 세상이 호렙산에서의 두려움에 찌들어서 사는 모습일까요?
프랑스의 부호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서 나라를 바꾸는 것처럼, 문제가 주어지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과 수고와 에너지를 투입하지 말고 세상을 바꿔야만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세상을 수정하고 좋은 세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세상을 다른 세상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나타난 사건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선민집단과 처음으로 만나는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통하여 선민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민들과 첫 번째로 만나시기 위해서 임재하실 때의 장면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산이 크게 진동하며”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이런 세상에 사는 것인데 이러한 상징적 기이한 현상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에서 구름은 땅과 하늘을 구분 짓는 상징적인 경계물이며, 우레와 번개는 구름 위에서부터 땅을 향하여 나타납니다. 바로 내 위에서 뇌성벽력이 친다면 그 순간에 하늘을 쳐다보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구름 위쪽으로 우리 마음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나팔 소리’는 비상시에 부는 것입니다. 땅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멈추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임하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므로 다 불살라져야 합니다.
‘산이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제 “하나님 음성의 데시벨”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주신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이 뇌성벽력처럼 들리고, 이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갖고 손을 대서 진행하던 모든 일에 대해서 멈추고 나팔소리가 크게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리는 세상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계속하던 삶이 중단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소리도 내 마음을 빼앗지 못하는 세상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로 떨고 있던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보여주셨고 엘리야는 그에 대해 대답을 하는데, 9절과 13절에서 "…엘리아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10절과 1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하나이다"라고 엘리야가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이것은 아직 엘리야가 자신이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를 신앙하는 자가 자기만 남았다고 대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완전히 주관적 느낌의 세계에 갇혀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공간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서 있지를 못하고, 자기 마음의 주관적 느낌의 세계에 갇혀서 자신뿐이라고 했습니다.
바깥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칠천 명이나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있었는데도 자신을 혼자로 여겼는데, 이처럼 주관적 느낌의 세계에 갇혀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해서 도망 나왔다고 하는 두 번째 반복되는 이 대답은 온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뇌성벽력과 같이 임하셔서 그 음성이 들릴 때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무섭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세벨의 위협이 뇌성벽력으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소리로 바꾸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뜬금없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 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조를 대체하는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데 이 이후를 보면 엘리야가 아람 왕이 될 하사엘과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조를 대체하여 왕이 될 예후와 자신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기록이 없는데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본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본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하여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에서 유래한 것인데 기름부음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기름부음은 성별하는 것인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열왕기하

8장을 보면 엘리사가 아람 왕 벤하닷의 군대장관이었던 하사엘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하사엘은 그 예언을 듣고 벤하닷을 죽이고 왕이 되고, 이후로 하사엘은 지속적으로 북 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섬기는 북 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막대기로 하사엘을 사용하시려고 구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도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을 죽이고 왕이 되어서 아합의 왕자 칠십 명을 다 죽이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예언했고 예후는 그나마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부음이 이루어지는데 엘리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엘리사의 제자 중의 익명의 청년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엘리아야! 이세벨과 아합이 두려워서 여기까지 와서 내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 돼 버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의 소리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는 바람소리가 되고 지진이 일어나는 소리가 되고 불이 붙는 소리가 되어서 네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네가 무서워하는 이세벨이 누군 줄 아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엘리사의 제자 중 익명의 제자가 예후를 기름 부으시는 일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과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명령을 받을 것이고 익명의 제자는 그 스승인 엘리사의 명령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사엘이 왕이 된 뒤에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전체는 혼란에 빠지고 풍전등화의 위기의식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나라가 위기의식에 사로잡히는 소리의 크기는 어마어마한 데시벨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그런 일을 하게 될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아람 왕 하사엘로 말미암아 위기의식에 빠질지라도 내 명령대로 그를 세운 너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나라의 위기의식도 느낄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북의 김정은이 발전된 핵 발사 체제를 만들고 핵잠수함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본은 얼씨구나 하며 국제사회에서 군사력증강의 이유를 합당하게 찾고, 또한 러시아도 끼어들고 중국과 미국은 북한과 사드문제로 한반도와 얽혀듭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난리를 치고 있지만 그들도 다 내가 세우는 것이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명령을 받아서 그들 가운데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데 네가 왜 내가 세운 왕들에 의해서 일어난 위기의식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위기의식을 크게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너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후도 마찬가지로 이세벨을 두려워해 도망하였습니다. 예후의 왕이 되는 과정도 엘리야의 제

자인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익명의 청년 제자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겨우 제자의 제자에게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 된 자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세벨을 죽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에 빠지게 한 죄를 물어 아합의 왕자 칠십 명을 죽일 형벌을 내리실 것인데, 겨우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바꾸어버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투기의 발진 소리와 같은 150~200데시벨로 들을 수 있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이고, 갈멜산에서의 위풍당당함이 선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엘리야 안에 있던 무엇인가를 전하라는 뜻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200데시벨로 들리는 마음을 계승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돈이나 지식이나 인생철학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다른 세상입니다. 이러한 다른 세상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려야만 합니다.
계4: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가 나고…”라고 하신 것처럼 보좌에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반사적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뇌성벽력과 같은 것이므로 그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마귀가 들어와서 죄악이 지배하고 유전 죄가 지배함으로서 마음을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땅에 붙게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무협영화를 보면 말을 타고 쳐들어 올 때 적군의 기색을 느끼기 위해 땅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땅에 대니 땅에서 일어나는 소리들이 증폭되어 잘 들립니다. 반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소리는 세미하게 되어 들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서의 큰 소리로 들려주신 언약을 통해 위풍당당하게 살아야 될 세상인데도 다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가치가 없으면 난리가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것들을 달라고 하며 살아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1: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음성의 데시벨을 높일 것을 명하셨습니다. 앞에 적군이 진을 치고 있을 때 두렵습니다. 그러나 적군의 함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다윗의 마음에는 골리앗보다도 하나님 음성의 데시벨이 더

높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 나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만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골리앗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서의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뜻하는 대로 우리 마음이 구름위의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나팔 소리는 이 세상 모든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산이 진동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마음을 붙일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고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사건 안으로 수렴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따로 기억하지 않아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세상에 대해 마음이 죽었다는 고백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많이 가지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라 전체를 흔드는 소리보다도 더 크게 들려질 것입니다.
이북의 김정은이 난리를 치고, 일본의 아베가 독도나 위안부 문제로 시비를 걸고, 미국이 자기 이권을 위해 한반도를 이용하려고 하며, 중국이 나서서 압박할지라도 선민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붙잡아서 그 모든 소리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한 명의 선민이 핵폭탄보다도 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기름 부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직접 붓지 않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 또 엘리사를 감동시켜서 이름 없는 제자가 기름 부어 북 왕국의 왕이 된 자가 죽일 정도의 이세벨을 왜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의 말 한 마디에 기가 살아서 왕이 되는 하사엘이 북 왕국 이스라엘을 위기에 몰아넣는다 하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익명의 제자가 왕이 되라고 해서 왕이 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역사도 세계의 지도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우리의 위풍당당함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소리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시내산에서의 임재 사건이 보여주셨던 모든 일이 실현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뇌성벽력으로 들리는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